

방문지역의 홍보요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통 자본 이용의 고도화이다. 관광 여행에 있어 교통수단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여행은 공간적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운송 서비스는 관광 여행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관광 여행과 교통기관은 상호자극을 교환하면서 관광 여행의 증대와 교통수단의 발달을 동시에 실현하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철도의 발달 및 도로망의 정비는 국민관광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발달은 오늘날과 같이 항공운송이 발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셋째, 문화적 관광자원의 보호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관광자원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들 수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문화적 관광자원을 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관광을 떠나는 여행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유산이라는 차원을 초월하여 전 인류의 공동 재산이라는 인식으로 보호, 관리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인식하게 한다.

제2절 관광자원

1. 의의

관광자원의 개념을 규정하고 설명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의 목적, 관광자원의 대상 범위, 관광자원의 기본적 성격, 관광자원의 가치성 등을 그 개념 요소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관광자원이란 인간의 관광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적, 인문적 자원의 총체로서 매력성과 유인성을 지닌 소재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고 그 범위 또한 무한히 확대되고 있지만, 현대인의 변화 욕구충족에 도움이 되고 매력성과 유인성을 지닌 우리 고장의 자연적, 인문적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유일의 방사능 유탄온천인 백암온천을 비롯하여 지하 금강이라 불리는 성류굴,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리는 불영사계곡, 금강소나무숲길, 동해안의 완만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는 7개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 이외에도 14점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13점의 도지정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어 그 어느 고장보다도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울진지역은 원전 주변 지역으로 자치단체 및 원자력 사업자에 의해 여러 지원 사업이 진행됐으며,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해양자원을 보유하는 등 자연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있

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고,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²¹¹

2. 자연자원

자연적 관광자원이란 관광 욕구와 결합한 자연적인 관광대상으로서 주로 경관미와 야외 스포츠 레저의 기능을 특성으로 하는 자원을 말한다. 모든 자연대상이 자연적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관광 욕구충족이나 관광 매력성과 결합할 수 있는 소재라야 하며 이러한 자연적 자원에 대한 관광 매력은 자연경관의 감상이나 스포츠 레저활동과 같은 기능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울진군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위치하고, 총 면적 989.37km², 약 2만 4천 여 세대, 6만 여 명 인구 규모의 소도읍이다. 전체 면적의 85.6%가 임야로 서북쪽은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동쪽은 해안을 따라 저평한 평야가 남북으로 좁고 길게 발달해 있다.²¹²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자연적 관광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온천

(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에서는 백암온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다. 신라 시대 한 사냥꾼이 창에 맞은 사슴을 쫓다가 날이 저물어 포기하였다. 그 이튿날 다시 사슴의 행방을 찾아 근처를 헤매던 중 사냥꾼은 상처를 치유한 사슴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사냥꾼은 사슴이 누워 있던 자리에서 뜨거운 샘이 솟아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뜨거운 샘이 발견된 후 인근 백암사 스님이 돌무더기로 탕을 만들어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고려 명종 때는 목조 욕탕으로, 조선 시대 때는 석조 욕탕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13년 일본인이 최초의 현대식 일본 여관인 평해백암온천관(平海白巖溫泉館)을 신축하였다. 백암이란 이때의 일본식 여관의 상호로서 오늘날 백암온천관광특구의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백암온천은 1979년 12월 31일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교통 조건과 수질, 주변 환경 등이 좋아 1980년대 이후 종합 휴양지로 급성장함에 따라 1997년 1월 18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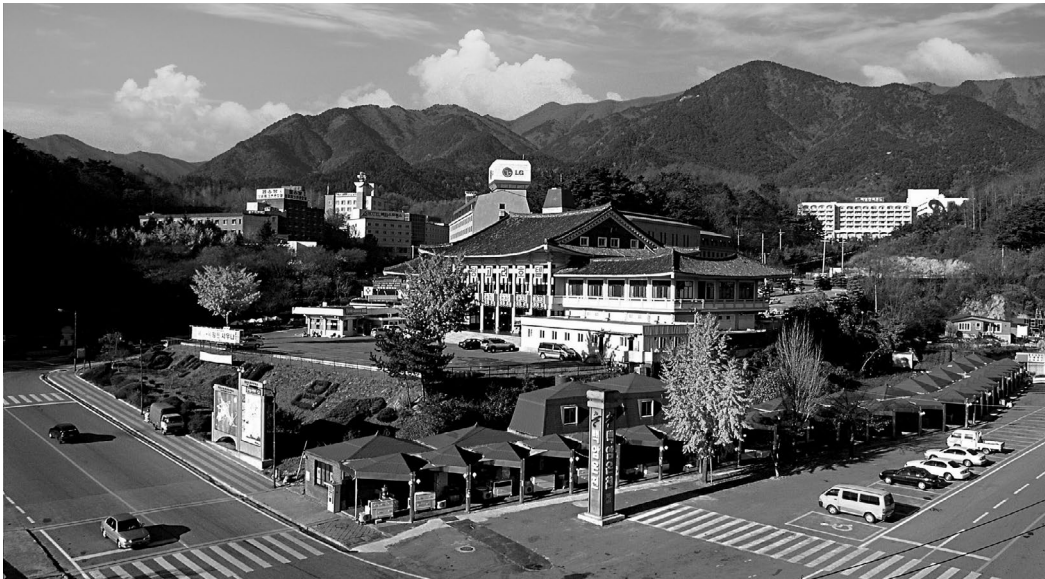
211. 이윤호, 박성민, 이재민, 김채복, 2020, 「SWOT/AHP 분석을 통한 울진지역 발전전략 수립」『지역발전연구』29-1,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59쪽

212. 김선희, 2015, 「도보여행길에 대한 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관계 분석 :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소나무숲길을 중심으로」『대한지리학회지』168호, 대한지리학회, 343쪽

백암온천 지구 내에는 관광호텔 2개소, 일반호텔 2개소, 여관 10개소, 콘도 1개소 그리고 기업·기관의 연수원 3개소가 자리 잡고 있다. 수십 개의 음식점과 노래방 등의 위락장 및 미니마켓, 약국,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주차장에는 소형 차량 1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숙박업소를 포함하여 10개소가 있다.

백암관광호텔[대표 황지성]은 백암온천 지역이 1979년 12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데 이어 1997년 1월 다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설립된 1급 관광호텔이었다. 지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요양 치료 및 각종 세미나와 연회 유치를 위해 설립되었다. 1913년 일본인이 건립한 백암여관의 전통을 이어받아 2001년에 새로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다. 객실은 한실·단체실·특실·귀빈실 등 총 127개가 있었으며, 부대시설로는 연회장·커피숍·양식당·단체식당·바·나이트클럽·민속주점·토산품점·노래연습장·게임룸·헬스장·야외수영장·대중온천탕·소온천탕 등이 있었다.

백암온천은 영덕-온정리-울진을 잇는 구조곡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남대천의 지류가 흐르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백암산(白巖山)(1,004m)과 서화산(494m)이 솟아 있다. 백암온천은 대단위 온천단지로 온천 관련 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도 모두 온천수를 사용할 만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국내 유일의 방사능·유황 복합 온천으로 심도 77~300m에서 솟는 천연 온천수이다. 평균 온도는 50°C 정도이다. 인체에 유익한 다량의 광물질을 함유하여 자율신경계통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및 중풍, 피부 질환,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림 21> 백암온천관광특구

백암온천수는 pH 9.3의 상급 온천수로 수소이온 농도가 전국 최고이며 천연 알칼리성 마시는 물로 현대인의 산성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와 위궤양, 위염 치료 효과, 유행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만성 관절염, 변비, 외상 후유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연간 1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가 지나는 평해읍에서 서쪽으로 12km 거리에 위치하며, 지방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백암온천 지구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8월 올린 백암온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인근 관광지로는 월송정·망양정·성류굴·불영사·불영계곡 등이 있다.

(2) 덕구온천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서는 덕구온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인 고려 말기 태백산맥의 동쪽에 있는 응봉산(鷹峰山)[999m] 아래 활과 창을 명수인 전모라는 사람이 20여 명의 사냥꾼과 함께 멧돼지를 쫓고 있었다. 그런데 상처를 입고 도망가던 멧돼지가 한 계곡에 이르러 몸을 씻더니 다시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전씨 등이 멧돼지가 몸을 씻은 계곡을 살펴보니, 그곳이 바로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온천수 자리였다고 한다.

노천에서 자연 유출되는 온천수를 발견한 후, 북면 덕구리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돌을 쌓아 온천탕을 만들고 통나무로 집을 지어 관리해 온 것이 노천 온천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79년 덕구온천 측이 개발승인을 얻어 계곡을 따라 무동력으로 송수관을 통해 온천수를 개발하였다.

본래는 소규모 노천탕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종합 온천장으로 개발되었다. 1983년 10월 온천지구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구온천은 원래 계곡 바닥에 탕을 만든 국내 유일의 노천 온천이었으나 1984년 여름 발생한 홍수로 온천이 유실되었다. 또한, 온천 주위의 부지가 좁고 협곡인 탓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워 현재는 4km의 송수관을 연결해 덕구온천장에서 온천물을 공급하고 있다. 덕구온천은 1991년 2층 건물로 개장하였다.

실내 온천 시설로는 초현대식 거품욕, 플로팅, 바디 마사지, 벤치 자쿠지, 넥샤워, 버섯탕 등의 테라코아와 아쿠아 포켓, 침탕, 스파탕, 에스테탕, 2레인폴 등의 액션스파 그리고 어린이 슬라이더, 장수건강지압 보도, 카페테리아, 사우나 등이 갖추어져 있다. 야외 온천 시설로는 선탠장 베드, 이벤트탕, 바가지탕, 물안마 폭포탕, 원목온탕, 정자황옥데크, 맥반석 동굴탕이 갖추어져 있다.

덕구온천은 태백산맥의 주능선을 이루는 응봉산 남쪽 자락, 동해안 국도 7호선에서 8km 서쪽에 자리한다. 1일 용출량은 약 300t, 수온은 43°C이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온천으로, 신경통·당뇨병·소화불량·빈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특히 피부병과 근육의 피

로를 푸는 데 탁월하다고 한다.

덕구온천 측은 응봉산 정상과 노천 원탕까지 등산로도 정비해 놓았다. 덕구온천에서 원탕까지 금문교·노르망디교·장제이교·하버교 등 세계의 유명 교량 12개를 축소 모형으로 제작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근 관광지로는 불영계곡·불영사·동대암·망양정·성류굴·연호정 등이 있다.



<그림 22> 덕구온천

2) 동굴

(1) 성류굴

성류굴을 부르는 이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그 경치가 우아하고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는 뜻에서 선유굴(仙遊窟)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신라의 화랑인 영랑·술랑·남랑·안상 등 네 명의 화랑이 굴속에서 놀았다고 하여 선유굴이라 불렸다고 한다.

또한, 임진왜란 때 성류사란 절이 이 부근에 있었는데 왜병들에 의하여 절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때 성류사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들을 이곳 굴로 피난시켰으며, 따라서 불성(佛聖)이 머무르는 곳이라 해서 성류굴로 개칭하게 되었다. 『울진군지』에는 장천굴(掌天窟)이라 불렸다고 기록이 되었다.

동굴 앞을 흐르는 맑은 물이 산과 나무가 어우러진 계곡 아래쪽에 위치하며, 동해로 흘러드는 왕피천(王避川)의 동안(東岸)에 있다. 관동팔경 중의 하나인 왕피천 입구에 있는 망양정(望洋亭)과는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굴 입구는 앞이 확 터져 있어서 아름다운 절경을 이

루고 있다. 동굴의 내부 온도는 약 15~17°C로서 연중 거의 변화가 없고, 습도는 늘 축축한 90~95%를 유지하며, 동굴 내의 수온은 15~16.5°C 정도이다.

성류굴은 왕피천에서 흘러드는 물이 석회암 지형에 침식작용을 일으켜 만들어낸 것으로 생성 시기는 2억 5,000만 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성류굴은 석회암 지대에서 발달하는 전형적인 석회 동굴이다. 석회암은 담홍색·회백색 또는 백색을 띠고 있다. 동굴의 길이는 약 472m에 이르며, 입구에서부터 동굴 끝까지의 사이에는 종유석과 굴 모습이 기이한 곳을 골라 오작교·만불상·로마궁전 등의 이름으로 된 12개의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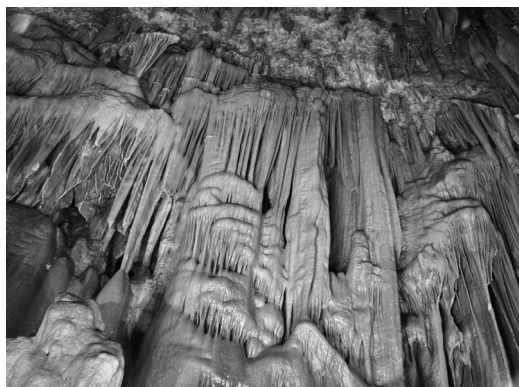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동굴 광장이나 동굴 내부에는 지하 궁전과 같이 화려한 종유석과 석순, 유석(流石)이 발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동굴 입구는 협소하여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지만 내부에는 훌륭한 석회 동굴이 형성되어 있고, 광장에는 물이 고여 있다.

이들 중에는 수심이 4~5m에 이르는 곳도 있다. 여름에는 서늘한 피서지로, 겨울에는 습기가 있어서 좀 차가운 느낌이 든다. 동굴 내부에는 500m를 전진하는 동안 50여 평의 대광장[12개소], 석간수가 고인 심연[3개소], 깎아 세운 듯한 석벽, 높이 15m의 대석탑,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석북 등이 있다. 울진읍에서 남쪽으로 지나는 국도 7호선에서 근남면 수산리와 노음리를 거쳐 구릿재인 동현(銅峴)을 넘어선 곳에서 약 500m 정도 북서쪽 강변으로 가면 도달할 수 있다.

2019년에 성류굴에서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화랑과 승려 이름이 새겨진 글귀가 발견됐다. 울진 성류굴 입구 230여m 안쪽에 있는 종유석과 암벽 등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각석 명문 30여 개를 확인했다. 동굴 안에서 명문이 발견된 사례는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통일신라시대 명문임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정원십사년 무인팔월이십오일 범렴행(貞元十四年 戊寅八月廿五日 梵廉行)’[정원 14년 8월25일에 승려 범렴이 다녀갔다는 뜻]이란 글귀다. 정원은 중국 당나라 시대 덕종[재위 779~805]이 785년부터 사용한 연호로, 정원 14년은 원성왕 14년인 798년을 가리킨다. 또한 ‘임랑’, ‘공랑’ 등 통일신라시대 여러 화랑 이름과 이 시기 관직 이름인 병부사 등도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일부 명문이 524년 새겨진 울진 봉평리 신라비[국보 242호]의 해서체와 비슷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이번에 ‘장천(長川)’이란 글자도 발견됐는데, 성류굴에 흘러들어 지하호수를 형성하고 있는 왕피천의 옛 이름이 장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림 23> 성류굴



<그림 24> 성류굴

3) 해수욕장

남동녘 태백산 줄기를 따라 줄줄이 이어지는 8개의 천혜의 해수욕장들은 완만한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눈부신 백사장과 동해안 특유의 만경창파에 넘실대는 파도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어느 해수욕장에서든 해수욕과 어항의 풍물, 그리고 배후의 절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4년 죽변 봉평 해수욕장과 기성 구산해수욕장을 개장한 이래 1997년까지 5개의 해수욕장이 추가로 개장되어 1998년 현재 총 7개의 해수욕장이 개장되어 있다. 특히 북면 나곡리의 나곡해수욕장은 군내 해수욕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백사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기성면 구산리의 구산해수욕장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군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수욕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1) 후포해수욕장

울진군에서 가장 남쪽 후포면 삼율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250m가량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깨끗하고 고운 모래톱이 인상적이며, 해수욕 외에 위쪽의 후포항에서 싱싱한 회와 어패류를 맛볼 수 있다.

여름 피서철이면 시원한 해수욕을 하기 위하여 후포해수욕장으로 모여든다.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며, 바나나보트·미끄럼틀 등의 즐길 거리도 많다.

(2) 구산해수욕장

평해를 지나 북쪽으로 3km쯤 달리다 보면 도로변에 우거진 송림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구산해수욕장이다. 이곳은 백사장 길이가 500m 정도 되며, 모래와 물이 깨끗하다. 또한, 아름답고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해풍은 해수욕하지 않아도 무더위를 식혀줄 만큼 시원하다.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어 여름 피서지로는 더할 나위 없고 수심이 1.2m 안팎의 바닥에서 건

저 올리는 백합 채취는 또 다른 재미라 할 수 있다. 인근 횃집이 많아 구산항에서 갯 잡은 신선한 자연산 활어회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해수욕장 옆에 관동팔경 중 하나인 월송정이 자리하고 있어 해변 트레킹 등 산책을 즐기며 달빛 기행을 벌이기에 좋다.



<그림 25> 구산해수욕장

(3) 기성망양해수욕장

하늘을 향해 시원스럽게 뻗은 해송과 십 리에 가까운 백사장이 어우러진 곳으로 수질이 매우 깨끗하고 백사장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썰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의 거품을 보며 한적한 백사장을 걷는 기분은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는 정취이다. 송림이 우거진 숲에서 야영과 민박을 할 수 있으며,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이 4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남쪽으로는 구산항, 북쪽으로는 오산항이 있어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손쉽게 먹을 수 있으며, 여름 오징어 철에는 도로변 양쪽으로 오징어를 건조하는 ‘오징어 거리’가 형성되는 진풍경을 볼 수 있고, 건조된 오징어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망양정 옛터가 마을 앞에 자리하고 있어 옛 관동팔경의 진수를 엿볼 수 있으며 북쪽 5분 거리에 대게 모형 해변공원이 있어 관광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4) 망양정해수욕장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과 옆으로 왕피천이 흘러 망양정해수욕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개최되었으며, 인근 엑스포공원, 성류굴과 민물고기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접할 수 있다. 망양정 앞바다는 강물과 어울려 환상적이고 해양수산부 주관 2007년 7월의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군 단위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해맞이 공원이 있어 동해의 일출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그림 26> 망양정해수욕장

(5) 봉평해수욕장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해수욕장으로서 죽변항, 그리고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과 인접한 있어 해수욕과 더불어 관광을 겸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울진을 시내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주변의 숙박시설은 모텔과 민박 등을 할 수 있다.

(6) 후정해수욕장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죽변항 북쪽에 자리한 후정해수욕장은 바닷가에 인접한 송림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주차장이 완벽히 마련되어 있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백사장과 바위섬이 있고 해안가 옆 송림이 있어 이곳에 텐트를 치면 뜨거운 태양 빛도 피할 수 있고 한눈에 펼쳐진 동해를 조망할 수 있다. 후정해수욕장은 더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거닐 수 있고,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백사장에서 백합 조개 잡기와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죽변항에서 북쪽으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여도 된다. 인근의 울진원자력홍보관 견학, 덕구 온천욕도 함께 즐길 수 있다.

(7) 나곡해수욕장

바위섬 경치가 아름다우며 야영과 민박을 할 수 있고, 인근에 나곡1리 어촌체험 마을이

있다.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여 물놀이 하기가 좋아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다. 임금님께 진상된 고포 미역의 주산지로 봄철에는 미역을 채취하여 말리는 시골어촌의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며 인근 어촌체험 마을을 중심으로 황홀한 다이빙 포인트가 많아 다이빙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변 나곡 방파제에서 낚시도 가능하다.

4) 계곡

(1) 불영계곡

불영계곡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부터 근남면 행곡리까지 이어지는 긴 계곡이다. 이곳은 굽이진 계곡과 특이한 형태를 가지는 암석[부처 바위, 사랑 바위]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불영계곡은 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마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형된 암석으로, 이러한 편마암이 드러나게 된 것은 동해로 흘러나가는 계곡물이 오랜 시간 편마암 위의 돌을 깎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의 편마암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질작용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중의 가장 큰 특징인 흑백의 줄무늬[얼룩말 무늬]와 눈 모양 구조는 편마암이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졌다. 줄무늬 구조는 높은 열에 의해 암석의 흰 성분과 검은 성분이 분리된 후 강한 압력에 눌러 흰 띠와 검은 띠가 생길 때 만들어지며, 눈 모양 구조는 흰 성분끼리 서로 뭉쳐서 만들어진다.



<그림 27> 불영계곡과 불영사

(2) 덕구계곡

덕구계곡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 있는 계곡이다. 덕구계곡은 높이 998.5m인 용봉산[일명 매봉산]에서 덕구온천이 있는 덕구리까지의 계곡이다. 계곡 중간마다 선녀탕, 옥류대, 무릉, 형제폭포 등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계곡 중간지점에 있는 용소폭포는 용이 지나간 듯한 꿈틀거림의 흔적이 암벽에 새겨져 있으며, 그 위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다.

온천이 용출되는 탓으로 계곡에 들어서면 따뜻한 기온을 느낄 수 있는 덕구계곡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차도에서 온천장까지는 약 4km를 도보로 가야 하는데 이 도보의 길은 심산계곡의 등산로로서 경치가 아름답고 산뜻한 공기와 계곡으로 티 없이 맑은 물이 흐른다.

이러한 대자연 속에서 명산 영봉의 정기를 받은 산신 약수로 온천욕을 즐기는 것은 속세를 떠난 듯한 신비 그 자체라고 할 만하다. 덕구온천은 수온 43°C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통과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

울진군은 덕구계곡 원장골 4km 구간에 유명한 교량들을 축조해 만든 금문교, 노르망디교, 하버교, 장제이교 등 12개를 놓았다. 이들 다리는 10~35m에 이르는 계곡 너비와 주변 경관을 고려해 축조, 제작되었으며, 이 가운데 금문교의 모형이 29m로 가장 길고 하버교가 11m로 가장 짧다. 덕구계곡은 풍광이 아주 좋으며 또한 계곡 주변으로는 울창한 원시수림대가 우거져 있어 1983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3) 신선계곡

신선계곡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에 있는 계곡이다. 신선계곡은 천연 기암절벽이 많은 계곡으로 계곡 전체에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고, 계곡 곳곳에 여러 개의 담이 있다. 계곡물이 맑고 깨끗하며 갖가지 형상을 한 바위들과 한데 어우러져 비경을 이룬다. 이 진사(李進士)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 사방에 있는 계곡의 아름다움이 신선이 놀던 곳과 같아 하여 신선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계곡의 동쪽은 서화산과 백암온천, 서쪽은 영양군 수비면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으로는 백암산과 태백산맥의 준령들이 이어져 있다. 북쪽은 외선미리와 구주령이 있는 험준한 산과 계곡들이 연결되어 있다.

백암산 자락에 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울창한 신선계곡은 수십 개의 늪과 담이 있다. 신선계곡의 상류에는 고모산성과 백암산성의 능선이 아기자기하여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계곡의 등산 코스로는 선미초등학교-[1시간]-어부동골-[1시간 20분]-너와집 타-좌측능[합수곡]-[1시간 20분]-정상 갈림길-[20분]-정상[도상 거리 약 7.8km, 약 5시간 소요]으로 연결된다.

울진군에서는 백암온천 특구 관광 구축사업의 하나로 자연 훼손 없이 신선계곡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여 산책로를 개발하고 있다.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온정[백암]까지 50분마다 버

스가 운행되며 1시간이 소요된다. 평해에서 백암[온정]까지 15분마다 버스가 운행되며 20분이 소요된다. 평해읍에서 서쪽으로 국도 88호선을 따라가면 백암온천이 나오며 신선계곡은 약 7km 더 들어가야 한다.



<그림 28> 신선계곡

(4) 구수곡계곡

울진과 삼척을 가르는 응봉산 자락 맑은 계곡 사이로 자리하는 구수곡자연휴양림은 특별함이 있는 휴식 공간이다. 전국 여러 곳으로 맑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휴양림이 많지만 휴양림의 삼림욕과 인근 덕구온천의 온천욕, 울진 앞바다의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특별하다. 물이 많아 아홉 개의 물길을 담는다는 계곡은 18곳의 폭포와 소가 어우러지는 청정수의 고향이고 맑은 기운으로 자라나는 금강송의 푸르름은 휴양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2001년 개장한 시설은 깔끔하고 자연과 그대로 어울리는 여유가 있는 장소다.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듬어진 야영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낭만도 추억이 된다. 야생화단지를 지나 구수곡계곡을 이어가는 탐방로는 청정자연을 찾아가는 등산로이다.



<그림 29> 구수곡계곡

5) 항구

(1) 후포항

군내 최고의 수산물 생산고를 자랑하는 울진 최초의 축항지로서 등대와 방파 및 방사제가 마련되어 있어 선박들의 입·출항이 편리하고 제빙과 통조림을 위한 가공시설이 완비된 울진 제일의 항구이다. 항구 주변에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울진 대게·도루묵·가자미·고등어·굴뱅이 등이 많이 잡히고 있다.



<그림 30> 후포항

(2) 죽변항

죽변항은 울진의 북단에 있으며, 죽변등대는 동해를 운항하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균 8톤급 소형선박 200여 척이 드나들 수 있으며 오징어를 비롯한 울진 대게·문어·새우·쥐치 등이 주로 잡힌다.



<그림 31> 죽변항

(3) 사동항

1971년 12월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된 사동항은 동해 중부의 죽변항과 후포항의 중간에 있으며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근해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어업 활동 근거지로서 기본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주변에 불영사계곡, 백암온천 등 많은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어항이라 할 수 있으며 오징어를 비롯하여 방어, 문어, 쥐치, 대게 등이 주로 잡힌다.

제3절 지역 축제

1. 울진국제대게축제

울진국제대게축제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매년 3월에서 4월경에 울